

전일동향

전일대비 5.0원 하락한 1,370.0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0원 하락한 1,37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00원 하락한 1,373.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 오전 한 때 상승 반전했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대규모 유입은 하방 압력을 가했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기준금리 2.5% 동결)에도 큰 변동 없이 1,370.0에 증가(15:30)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5.5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7.31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3.00	1375.50	1370.00	1370.00	1373.00
엔화	939.38	942.86	935.45	936.51	-	
유로화	1611.50	1614.57	1600.30	1602.86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55	-6.71	-15.05
결제환율(수입)	-1.15	-5.82	-12.81	-25.1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고용지표 호조에...1,37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70.00) 대비 1.95원 상승한 1,369.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시장이 둔감해진 가운데 견조한 고용지표로 제한적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만 7천건을 기록하며 예상치(23만 5천건) 및 전주치(23만 2천건)를 모두 하회하며 미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이와 맞물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달러 강세와 수입업체 결제 등 역내 저가매수세에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거주자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달러 환전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수입업체의 공격적인 달러 매수 대응이 추가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연내 2회의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인플레이션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은 연준 금리경로를 뒤쳐지게 만들 수 있다며, 가을 무렵에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금리 인하 지지 발언과 국내 주식 시장 외국인 매수세 강화는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7.00 ~ 1376.2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693.7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5원 ↑
	■ 美 다우지수 : 44650.64, +192.34p(+0.4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5.5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7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